

# 한국문학비평과 유기론적 전통\*

구 모 룡\*\*

## 차 례

- |                |                     |
|----------------|---------------------|
| I. 머리말         | 1. 이론의 내용           |
| II. 유기론과 전통    | 2. 이론의 양상           |
| 1. 자연 유비와 생명시학 | IV. 유기론의 반근대성과 탈근대성 |
| 2. 제유적 세계관     | V. 마무리              |
| III. 유기론의 구조   |                     |

## I. 머리말

우리 비평을 유형화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근대 이후 한국 비평은 서구 비평이론의 유입으로 다양화·다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근대비평사를 근대성 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근대비평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근대성 획득을 가장 중심적인 기획으로 삼았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럴 때 근대비평은 주체인 근대성 체계와 이의 타자인 반근대성 체계의 관계로 설명된다. 근대성 체계를 형성하는 것은 모더니즘과 역사적 모더니즘인 마르크시즘이다. 이 둘은 상호대립하면서 보완하는 관계를 보인다. 전자

\* 이 논문은 199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동아시아학과 조교수

가 도구적 합리성에 반항함으로써 미적 합리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면 후자는 진보주의적 계몽의 기획으로 리얼리즘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 둘의 대립은 근대비판의 방법에 있으나 궁극적으로 근대성을 구현하고자 한 점에서 같은 지평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모더니즘의 이중적인 의미체계가 지적되어야 한다. 모더니즘의 기획은 미적 합리성에 의한 근대비판의 계기를 통하여 근대성을 실현하고자 한 점에서 이중성을 내포한다<sup>1)</sup>. 이 점이 모더니즘의 지위를 애매하게 한다. 그러나 마르크시즘을 역사적 모더니즘이라고 한 것은 넓은 의미의 근대성 실현의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모더니즘과 공통성을 지닌다는 데 연유한다.

근대성 체계의 타자로서 반근대성 체계를 대표하는 것이 유기론organology이다. 이것은 전통적 이론이며 근대적 이론인 모더니즘과 마르크시즘에 의해 대타화된다. 전통미학에서 유기론은 주체적 위치에 있는 담론이나 근대에 와서 이것은 대타존재성 담론의 한 양상이 된다. 유기론은 그러므로 전통을 통하여 주체가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결부된다<sup>2)</sup>.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상징들을 이용하여 정서의 심층부에 호소하고자 하는 민족주의의 한 양상으로도 이해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제국주의와 근대주의에 의해 파괴된 전통에 대한 향수를 내포한다. 그런데 유기론의 이론적 의의는 근대성 체계에 대한 대립에 있지 않다. 대립에 머무는 한 이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유기론의 의의는 근대성 체계에 대한 궁극적인 극복이라는 문제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대성 체계의 한계와 함께 제기되는 탈근대적 전망에 있어서의 유기론의 지위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 글은 유기론의 이론적 의의를 밝히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약간의 비약이 허락된다면 이 글이 근대성 체계로서의 근대비평사를 새롭게 재

- 1) R. J. Bernstein, *Habermas and Modernity* (The MIT Press, 1985), pp. 49-51.
- 2) R. 윌리엄즈에 의하면 근대사회에서 유기론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적이 된다. i) 사회의 전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 ii) 민족주의의 발생에서와 같이 한 민족의 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 iii) 문화에서 서서한 변화와 적응이라는 특정한 의미를 가진 자연적 성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 iv) 사회의 기계론적, 물질론적 해석을 부정하기 위한 것, v) 자연적 진행(즉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를 옹호하고 산업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것. R. 윌리엄즈(나영균역), 『문화와 사회』(이대출판부, 1988), p. 256.

구성하는 관점을 만드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기론이 지닌 반근대성이 탈근대성의 이론으로 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찾음으로써 근대성 중심의 비평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먼저 이 글에서 유기론의 전통과 이론구조, 그리고 이것의 근대적 변용에 대하여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유기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수렴하는 한편, 이론적 일반화를 시도한다<sup>3)</sup>.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를 통하여 유기론의 의의를 살핌으로써, 근대성 체계 중심의 비평사적 한계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유기론과 전통

### 1. 자연 유비와 생명시학

유기론은 자연 유비(類比, analogy)에 의한 전통적 사유방법이며, 뚜렷한 사유경향으로 동아시아인들을 강하게 지배해온 사유형태의 하나이다<sup>4)</sup>. 인간의 원초적 사유방법이 논리가 아니라 유비라는 점에서 볼 때, 유기론은 원초성을 지닌 존재발생론적 사유경향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원초성이 사유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종종 유비적 사유방법은 한계를 지닌 설명모델로 비판된다. 유비가 지니는 의미규정력의 작용이 경우에 따라서 인식론상의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유기론이 인식론적인 장벽을 내포한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유기론이 최초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과 유기론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부정확한 경험에 기초한 이미지가 실재적 존재치를 가진 속성으로 실체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자연 유비의 한 형태인 유기론이 자주 과학 미달로 비판된다. 그러나 유기론에 대한 비판이 과학주의에 근거

3) 이 논문은 특히 필자의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과감한 일반이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구모룡, 『지훈조동탁의 사유기체론 연구』(부산대 대학원, 1983); 『생명현상의 시학』, 『어문교육론집』 8집(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 『보존과 창조-도남의 유기론적 문학론』, 『외국문학』 1990년 봄호; 『한국 근대 문학유기론의 담론분석적 연구』(부산대 대학원, 1992). 참고.

4) 사유방법, 사유경향, 사유형태의 개념은 中村元(김지건역), 『중국인의 사유방법』(까치, 1990), pp. 7-8. 참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지니는 문제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주의 혹은 이성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앞의 두 가지 인식론적 장벽의 예처럼 유기론이 왜곡으로 비칠 소지는 많다. 그런데 과학/비과학 ; 이성/미이성 ; 문명/자연 등의 대립관계가 지배와 종속을 위해 형성된 담론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주의에 의한 유기론 비판은 문명의 자연에 대한 억압이나 서양중심주의에 의한 동양 지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아가서는 유기론이 우리의 전통적인 사유형태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오리엔탈리즘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전통적 사유가 자연 유비로 인간의 삶을 해석하였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를 들 필요도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전통적 사유는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일치관계에 대한 믿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사회의 법규와 자연의 법칙에 어떠한 분리도 없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천문과 인문의 유비관계는 전통적 사유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전통적 사유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창조하는 전진의 과정이며, 인간은 이 과정 중에 참여하여 화육하는 동등의 창조자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유에 의해 자연과 인간은 둘이면서 하나가 되어 생명 전체는 서로 융화하고 교섭한다<sup>7)</sup>. 그래서 우주는 만상을 포괄하는 생명의 약동이며 만상에 충만한 대생기(大生機, vital impetus)로서 잠시도 창조와 화육을 쉬지 않으며, 어느 곳이든 유행되고 관통되지 않는 데가 없다. 이처럼 유기론은

5)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존재론적이지 인식론적인 구별에 근거한 담론으로, 항상 서양의 우월한 위치와 문화적 헤게모니를 위해 형성되었다. E. 사이드(박홍규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pp. 11-58. 근대비평이 또 다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관점은 유기론의 이론적 위치를 보다 명료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동아시아 문학론의 탈근대적 재구성이라는 보다 큰 문맥에서 해명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6) 가령 『周易』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자연유비의 전통적 사유형태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 (『彖傳』) 이처럼 전통적 사유는 본체론과 인식론을 하나의 문맥 안에 두고 있다. 본체론에서 우주의 본질을 해명하게 되면 그 본질로써 심성까지도 해명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인식론적으로 관념론과 실재론의 구별과 대립도 없다. 배중호, 『동양 본체론 서설』,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식론』(한국동양철학회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2), pp. 11-12.

7) 方東美(정인재역), 『중국인의 인생철학』(탐구당, 1983), pp. 26-27.

인간과 자연이 전일성으로 통섭(統攝)되는 사유형태이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직접적 통일양식으로서의 일원론적 전체론이다<sup>8)</sup>.

유기론의 자연 유비에 의한 사유방법은 생명시학으로 나타난다. 생명시학은 유기체의 생명현상에 유비하여 시학의 원리를 설명한다.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지닌 생명의 속성은 시적 현상들을 밝히는 기초가 된다. 그런데 생명시학이 단순하게 유기체의 생명현상에 유추된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sup>9)</sup>. 그보다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본체론과 시학의 통일을 만든다. 생명시학은 시적 현상을 생명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를 우주적 생명의 도를 현시하는 과정으로 본다<sup>10)</sup>. 그리고 이러한 생명시학은 근대의 비생명적 기교시학에 대립한다. 근대의 시학은 기계적인 제작의 원리를 수용한다. 시를 잘 만들어진 유골항아리에 비유하듯이 생명적 미학보다 기하학적 미학을 지향한다. 따라서 시를 제작의 관점에서 보는 근대의 비생명 시학과 시를 생명 현

8) G. W. F. 헤겔 등의 이성주의자들은 유기론적 일원론을 i) 정신의 자연 속으로의 침몰상태, ii) 자연적인 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반성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판한다. 헤겔 등의 이성중심주의적 사유에 의하면 정신은 지배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신은 부자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들은 이 경우를 윤리적 규범이 인간에게 부과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 얹어 부과된 것이 아니며, 인간은 자유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고 말한다. G. W. F. 헤겔(임석진역), 『정신현상학』(지식산업사, 1989), pp. 323-380.

9) 가령 서구 낭만주의 시학에서 식물을 통하여 시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예가 된다. 가령 이렇다 : 식물이 종자에서 생기듯 시정신이나 영감에서 시가 생기고, 식물이 주위의 자양분이나 환경을 내부로 동화하듯 시인도 그러하며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자기를 완성하듯 시인 또한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M. H. Abrams, *The Mirror and Lamp*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p. 171-177. 그러나 이러한 예는 생명 현상의 궁극인 우주론적 유추에 미치지 못한다. 단지 문명의 타자인 자연을 불러오는 효과만을 나타낼 뿐이다. 물론 서구의 낭만주의가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항거'임엔 틀림이 없다. A. N. 화이트헤드(오영환역), 『과학과 근대세계』(서광사, 1989), pp. 119-149.

10) 劉若愚(李肇佑역), 『中國의 文學理論』(동화출판공사, 1984), pp.40-61.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동아시아의 전통 미학에서 기운생동(氣韻生動)을 가장 이상적인 미적 가치로 두고 있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기운생동은, O. 시렌에 의하면, '생동적 정신의 공명과 생명의 운동' 또는 '예술가와 우주적 힘을 결합하면서, 물질적 형식에 생명·풍격·의미를 부여하는 우주적·정신적 힘'으로 규정된다. T. 먼로(백기수역), 『동양미학』(열화당, 1984), p. 64.

상으로 보는 유기론의 생명시학은 대립된다. 근대의 생명시학이 변생명론으로부터 생명에 대한 병적 열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은 기계론적 시학과 대립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1)</sup>.

## 2. 제유적 세계관

유기론은 유기화된 전체성의 이론이다. 이것은 중심적인 생명력의 관념, 혹은 순환적 질서의 전체성이 만상의 원리라고 보는 사고의 표상형식이다. 유기론은 소우주와 대우주, 개별성과 전일성의 상관관계라는 형이상학적 패러다임을 지니며, 존재의 모든 양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속성을 자명한 원리로 삼는다. 이러한 유기론의 기저에는 저절로 자기 발생하는 생명의 과정이라는 포괄적 자연과 연속적 창조성의 전개로서의 우주에 대한 관념이 놓여 있다<sup>12)</sup>. 이러한 유기론적 세계관은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우주를 만드는 재료는 정신적이거나 물질적이지 않으며 둘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생명력이다<sup>13)</sup>. 이러한 점에서 유기론은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에 기초한 서구 근대의 데카르트적 사유형태와 확연히 구별된다. 杜維明은 이러한 유기론적 사유형태를 R. 야콥슨을 빌어 환유로써 설명하고 있는데<sup>14)</sup>, 유기론의 전일성이

- 
- 11) 구모통, 「생명현상의 시학」, 『어문교육론집』 8집(부산대 국어교육과, 1984). 근대의 생명시학은 생명을 창조적 힘(김억), 혼 또는 물신적 차원(김소월), 선시적(先詩的)인 것(박용철), 유기적 통일의 원리(정지용) 그리고 우주적 원리(조지훈)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
- 12) J. 니담은 우주에 관한 중국적 모형을 분석하면서 유기론적 우주관을 '명령자 없는 의지들의 질서 정연한 조화'라고 지적한 바 있다. J. Needham and Wang Ling,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II*(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p.287.
- 13) 이러한 생명력을 기(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杜維明, 「존재의 연속성 : 중국적 자연관」, 『자연 그 동서양적 이해』(L. S. 루너 편저, 이정배외역, 종로서적, 1989), p. 124.
- 14) 杜維明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천지와 더불어 삼위일체를 이룬다는 것은-무수한 사물과 일체를 이룬다는 것과 같다-우리로 하여금 주관·객관의 이분법을 자연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연을 그 밖의 외부적 대상으로 보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시각을 방해하고 자연을 그 안으로부터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인위적 장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생명력이 내적으로 공명함으로써 정신은 인간 신체의 가장 정제되고 미묘한 기로서 자연

만상의 '인접적인' 관계를 내용으로 한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그런데 유기론이 부분과 전체의 '내적' 연속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 비춰, 부분과 부분의 외적 연관성을 의미하는 환유의 인접성은 유기론적 사유형태를 설명하는 데 부적절한 면이 많다<sup>15)</sup>.

비유법이 사유나 상상력의 심층구조의 형식이라고 할 때, 유기론은 비유법의 기본 네 유형-은유, 환유, 제유, 아이러니-가운데 제유에 해당된다. 제유가 대상과 전체의 관계에서 통합적으로 표현된 내재성에 관한 어법이기 때문이다<sup>16)</sup>. 유기론은 K. 버크가 '고상한 제유'라고 말한 것에 해당한다. 버크가 말하는 고상한 제유란 소우주와 대우주가 동일하다는 형이상학적 주장인 바,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제유의 실례가 된다. 이러한 제유적 해석원리에 따르면 개인은 우주의 축소판이 되고 우주는 개인의 확대판이 된다. 전체는 부분을 재현하며 부분 또한 전체를 재현한다<sup>17)</sup>. 유기론의 제유적 사유에 의하면 시는 자연에

---

의 무수한 사물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감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감응(感應)의 기능은 자연을 거대한 조화로 특징지우며 그래서 정신에게 알린다. 정신은 그 자체를 환유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자연과 통일을 이룬다. 자연에 대한 심미적 감상은 주관에 의한 객관의 충당도 아니고 객관의 주관의 부고도 아니라 변화와 참여를 통한 확장된 실재로의 자아의 출현이다. 이 창조적 과정은 아콕스의 용어로는 '인접적(contiguous)'이다. 왜냐하면 우리와 자연 사이의 불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杜維明, 앞의 글, p. 135.

15) R. 아콕스에만 의존한다면, 유기론은 오히려 그가 환유의 다른 한 축으로 제시하고 있는 은유에 가깝다. 아콕스는 은유-연합관계·유사성·선택·대체·서정·시·낭만주의와 상징주의/환유-통합관계·인접성·결합·문맥·서사·산문·사실주의로 유형화하고 있다. D. Lodge, *The Modes of Modern Writing* (Edward Arnold, 1977), p.81.

16) K. 버크와 H. 화이트는 네 가지 주요한 비유법의 어법과 사유형태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가) 은유-재현적; 대상과 대상; 동일성; 형식주의

나) 환유-환원적; 부분과 부분; 외재성; 기계론

다) 제유-통합적; 대상과 전체; 내재성; 유기론

라) 아이러니-부정적; 확인된 것의 부정; 변증법; 텍스트주의

K. Burke, *A Grammar of Motives*(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503-517. H. 화이트(친형근역), 『메타역사』(문학고지성사, 1991), pp.47-55.

17) 이러한 제유적 사유의 한 예로, 戴震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 수 있다. “呈其自然之符，可以知始，極於神明之德，可以知終” 戴震, 『原道』1卷. 方東美, 앞의 책, p.28. 재인용.

개재된 원칙들의 표상이 된다. 그래서 시 창조의 궁극은 우주와 협력하여 화육에 참여함으로써 천인합일의 도를 체득하고 서로 화합하여 함께 변화하여서 똑같은 창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론의 문학 전통은 생명적 형식으로서의 문학작품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그 근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의 근원을 찾으며, 그 뒤에 천명에 의해 분배받은 본성을 언급한다<sup>18)</sup>. 유기론의 제유적 사유는 초월성과 내재성, 실체성과 원리성을 즉자적·무매개적으로 결합시킨다.

### Ⅲ. 유기론의 구조

#### 1. 이론의 내용

유기론의 사유형태로부터 문학을 설명하는 이론이 문학유기론이다<sup>19)</sup>. 이것은 생명현상의 유기적 과정과 그 공시적 체계, 그리고 부분과 전체의 관계와 관련된 가치의 질서 및 과정의 통시적 변화 등에 대한 이론이다. 유기론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과정의 문제이다. 이것은 화이트헤드가 지적했듯이 과정이 곧 실재이기 때문이다<sup>20)</sup>. 유기론적 본체론에서 전체 우주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유기적 전체에 속하며, 그 모든 부분들은 저절로 자기 발생하는 하나의 생명의 과정에서 참여자로서 상호작용하듯이 문학의 창작과 그 역사 또한 이러한 과정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이론에는 성장과 더불어 발생과 완성의 관념이 포함된다. 즉 발생-성장-완성의 과정이 하나의 연속성을 이룬다. 문학유기론에서 이러한 과정은 유기적 생명현상으로서의 창작

18) 그래서 劉若愚는 시인을 성인의 반열에 둔다. 왜냐하면 시인은 문학을 통하여 도(우주)를 표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劉若愚, 앞의 책, p. 57.

19) 전통적 유기론에서와 같이 예술작품의 생명체 유비의 역사는 오래다. 동아시아의 보편생명으로서의 자연유비가 그러하고 서양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S. T. 콜리지 등의 낭만주의 시학에서의 유기체 유비가 또한 그러하다. 그런데 서양의 경우, 창작심리학과 형식론과 관련된 것으로 현대에 이르러 문학작품의 통일성 개념으로 축소되었다.

20) R. 멜러트(김상일역),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신학』(지식산업사, 1989), p.28.

과정과 같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역사를 설명하는 틀로 전화될 때 유기적 역사의 개념이 형성된다.

유기적 역사는 유기체는 여러 변화들을 견디며, 많은 우발적인 사건 속에서도 유지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내와 유지는 오직 삶의 기본적 과정이 계속되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데서 환경과 관련된다. 이것은 마치 생명체가 완성을 지향하듯이 목적이나 목표를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연속적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잠정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칙으로 설명되기보다 원리나 이념으로 설명되는데, 원리나 이념이 본질적 자유라는 생명현상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 화이트에 의하면 이러한 유기적 역사는 생명체의 성장과정이 완성을 향하듯 낙관론적 전망에 의해 서술된다. 그래서 이것은 하강으로부터 상승이라는 회극구성의 원리를 지닌다<sup>21)</sup>.

유기적 과정의 생명체는 항상 역동적인 체계를 구성한다. 유기적 과정은 끊임없는 연소와 갱신을 의미하며, 그 전체의 체계는 부단한 유동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영원한 응결상태의 비생명체와 대조된다. 문학작품을 이러한 동적 유기체로 보는 것이 존재론이다<sup>22)</sup>. 이러한 존재론에서 유기론 특유의 주관주의 언어관과 미적 자율성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유기론에 의하면 문학작품은 작가의 의식의 순수한 구현체가 되며, 작가의 생명현상이라는 본질에 의해 통합되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언어에 의한 매개과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데 언어 그 자체도 자연발생적인 생명현상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sup>23)</sup>. 또한 문학작품이 충만한 생명의식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생명의 미가 최고의 미적 범주로 자리잡게 된다. 유기론에서의 심미의 의도는 우주에 있어서 창조적인 생명을 깊이 살피려는 것이고, 그와 합류하여 같이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론은 생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창조적 미 또는 천지의 미를 최선으로 삼는

21) H. 화이트는 N. 프라이의 네 가지 플롯 구성형식을 역사의 논증형식과 이데올로기적 관계에 의한 형식과 관련시키고 있다. 그에 의하면 유기론은 회극의 구성형식을 나타내게 된다. H. 화이트, 앞의 책, pp. 11-45.

22) 실제로 작품은 생명적 기능을 소유한 유기체가 아니다. 그러나 문학에 있어서 삶과 유기적 형식이라는 유비는 너무나 강력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S. K. 랭거(이승훈역), 『예술이란 무엇인가』(고려원, 1982), pp. 41-46.

23) M. M. 바흐친(송기환역),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한겨레, 1988), pp. 63-72. T. 이글턴(김명환외역), 『문학이론입문』(창작과비평사, 1968), p. 79.

위계미학을 보인다<sup>24)</sup>.

유기론은 전체론이다. 생명체 유비에서 전체의 통일성이 강조될 때 전체우위론적 가치이론과 계서론적 질서이론이 제시된다. 유기론에서 종종 다양성은 전체의 통일성에 복속되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전체가 전부이고 부분은 무라는 관념은 특히 유기론이 이질적인 이론과 대립적인 관계에 설 때 생긴다. 경우에 따라서 유기론이 사회유기체론이나 국가유기체론 등의 이데올로기로 전락되는 경우가 그 예이다<sup>25)</sup>. 이러한 극단적 전체론은 위계와 질서의 전체화에 의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본래의 윤리적, 미적 준거로서의 생명현상과 멀어지게 된다<sup>26)</sup>.

## 2. 이론의 양상

### 가. 서정시론

장르론에서 유기론은 시의 이론이다. 자연유비의 발상에서 뿐만 아니라 연속성, 통일성, 생명성 등은 시적 지향과 동일하다. 유기론적 관점에서 시는 보편생명의 표현이다. 시의 세계를 이루는 것은 개개의 생명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개별성은 보편생명에 대한 점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개별생명의 본성 속에 벌써 생명의 전일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인-시-보편생명의 관련성이 하나의 연속성 위에서 설명되어진다. 시인의 생명의 본성과 우주의 보편생명이 내재적 관계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유적 연관에서 시는 개체에서 보편으로, 부분에서 전체로의 내적 연속성을 얻고, 우주의 본질적 원리를 구현하는 차원에 이르게 된다<sup>27)</sup>.

24) 方東美, 앞의 책, pp. 164-183. T. 먼로, 앞의 책, pp. 89-90.

25) 이한구, 『역사주의와 역사철학』(문학과지성사, 1986), pp. 62.

26) 이러한 경우는 국가 유기체론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파시즘, 민족주의의 극단적 형태로서의 국수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경우 마르크시즘에 대항한 근대 유기론의 이데올로기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구모룡, 「생의 형식과 반근대주의 미학」, 『한국문학과 열린 세계의 비평담론』(열음사, 1992), pp. 72-76.

27) 이러한 시의 원리를 대표적 시유기론자인 조지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손바닥 위에서 세계를 보고 한 방울 이슬 속에 우주를 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완성된 모습은 그대로 소유주요, 개개의 태극이라는 것이다. 그러

유기론적 관점에서 시작은 하나의 소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경험세계의 혼돈으로부터 조화와 질서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한 편의 시는 우주의 조화와 질서의 재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유기론자인 조지훈은 플라톤의 시인관을 비판한다. 플라톤이 이데아를 인간정신이 접근할 수 없고 시로 표현될 수 없는 외부세계에 둬으로써 시와 이데아의 절대적인 분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지훈에게 있어서 이데아는 개별적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시를 통해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28)</sup>.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플라톤의 시인추방론<sup>29)</sup>에 맞서 시인정치론 혹은 시인옹호론을 펴는 바, 이는 시인을 성인의 반열에 둔 유기론의 전통에 그가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기론의 일반 이론에서 보였듯이 유기론적 시학 또한 위계미학을 보인다. 이것은 생명의 본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양식이 시라는 관점에 기인한다. 시학에서의 유기론이 서정시중심주의가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 서정시는 본질적인 정서, 원초적인 감정의 순수한 생명현상의 발현으로 간주된다. 생명의 최초상태의 표현이 서정시인만큼 이것은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며 정통의 영역인 것이다.

유기론적 시학에서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시창작론이다. 이것은 시작의 과정을 생명현상으로 설명한다. 앞에서 생명시학이라 명명한 유기론적 시학의 시창작론은 뚜렷한 하나의 전통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그래서 시작 과정을 탄생의 비유로 설명하는 모델은 이미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다<sup>31)</sup>. 생 속에 내재한 생명현상인 시정신은 우주의 생명적 본질에 상응하는 정신으로 시 이전에 선행한다<sup>32)</sup>. 이것이 시인의 개별 생명 속에서 자라 시로 성장하

---

므로, 시가 몇 마디의 언어로써 완성된 언어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그는 혼돈과 복잡으로서 소재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시인의 재창조를 통한 단순미의 설계로서 비약하면서 연락되고 나타난 이면의 무한광대성을 간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지훈, 「시의 원리」, 『조지훈전집』(일지사, 1973), p. 58.

28) 조지훈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예술은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단지 모방의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이데아 또는 생명의 원상이 직접으로 표현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지훈, 앞의 책, p. 16.

29)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민음사, 1989), pp. 251-263. 참고.

30) 근대 이후의 경우, 김억, 박용철, 정지용, 조지훈, 신동엽, 김지하 등의 시론이 이러한 전통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1) 이에 대한 것은 구도룡, 「생명현상의 시학」 참고.

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우주와 시인의 교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현상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이다.

#### 나. 서정소설론

유기론이 시의 이론만큼 이론적으로 소설과 관련되는 양상은 많지 않다. 그러나 생의 형식으로서의 소설이라는 유기론적 소설미학이 가능한데, 이 경우 서정소설론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양식의 선택에 있어서 유기론적 구속성을 탈피할 수 없다. 생의 형식으로서의 소설창작은 작가가 내부의 개별적 생명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삶의 외적인 여러 현상들을 동화하면서 생명의 고차적 형상을 그려내는 추상 과정이므로 궁극적으로 보편생명의 문제로 수렴되게 마련이다. 그래서 생명과정과 창작과정은 동일시되며 문학의 형식은 삶의 본질적인 형식과 대등한 하나의 형식으로 투영되거나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론적 소설시학은 경험주의를 넘어선다. 이것은 생의 구체적 소에서 출발하여 그것의 추상과정을 통하여 고차적인 의미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구경적 생의 형식이라는 형이상학적 관념으로 경도되게 되고 이것이 미학적 위계의 정점을 이루게 된다<sup>32)</sup>. 구경적 생은 우주라는 보편생명의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그 생명의 분신으로서의 자아, 절대적·초월적 자아를 인식하는 삶을 뜻한다. 이것은 개별적 생을 통하여 보편적인 우주의 이치에 이르고자 하는 제유적 사고의 한 형태이다.

32) 이를 필자는 시정신선행론이라 한 바 있다. 구모룡, 앞의 책, pp. 53-54.

33) 가령 유기론적 소설시학의 대표적 작가인 김동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는 한사람씩 한사람씩 천지 사이에 태어나 한사람씩 한사람씩 천지 사이에 살아 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와 천지 사이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유기적 관련이 있다는 것과 이 ‘유기적 관련’에 관한 한 우리에게는 공통된 운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천지의 파편에 그칠 따름이요, 우리가 천지의 분신임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체험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생은 천지에 동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의 이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구경적 삶이라 부르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김동리, 『문학과 인간』(백민문화사, 1948), pp. 44-45.

유기론적 소설론의 창작론은 시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작가는 고유의 개성과 생명을 바탕으로 외적 현실을 동화하면서 보편생명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창작의 과정이 유기체의 발생-성장-완성의 과정에 유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의 지위는 단순한 제작자가 아니라 고차적 생명의 의미를 표현하는 창조자가 된다. 유기론에서 작가와 시인의 지위가 최상이 되는 것은 이들을 생인의 반열에 둔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유기론적 소설론에서 작가는 생명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인간상을 창조한다<sup>34)</sup>. 따라서 인물의 성격은 추상화된다. 즉 보편성, 유기화된 전체로서의 자연적 삶을 나타내도록 그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기론적 소설은 근대적 삶의 분열과 모순을 재현하는 근대소설 일반과 달리 근대적 삶의 상실과 해체에 대응하여 생명적 본질을 옹호하기 위해 선택된 양식이다. 즉 시적 지향에 의해 선택된 양식이다. 따라서 유기론적 소설은 곧 서정 소설이 된다.

#### 다. 유기적 문학사론

유기적 역사의 개념은 문학사 기술방법론으로 연결된다. 유기적 문학사론은 문학사를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보는 전체론이다. 이러한 전체론에서 개체들의 관계는 생명현상으로 풀이된다. 장르, 양식 그리고 유형 들은 대립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족적 삶의 역사와 생명적 관계로 설명된다. 즉 문학사가 생명체의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기적 문학사론은 한 민족 단위의 모든 장르들은 발생적 관련성 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기 때문에 문학사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봄과 동시에 이 생명체는 민

34) 이러한 점에서 소설유기론은 인물중심이론이다. 그러나 같은 인물중심이론인 헤겔주의 미학과 이것은 구분된다. 헤겔주의 미학에서의 주인공은 i)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총체성, ii)존재의 총체성을 대표하는 주인공, iii)성격화, iv)구체적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되는 상황과의 불가피한 투쟁, v)종말적 성격과 발전적 성격의 대립, vi)플롯과 분리할 수 없음 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유기론이 창조하는 인간형은 현실 속에서 투쟁하는 구체적 인간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인간형이다. 이러한 인물은 현실의 구체성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불변적이고 영원한 생명현상의 한 모습이 된다. 헤겔주의 미학의 주인공에 대하여 G. 비스츠레이(편집실역), 『마르크스주의의 리얼리즘 모델』(인간사, 1985), pp. 20-21.

죽과 등가로 이해한다. 그래서 민족문학은 민족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고, 그 속에 생명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그것은 잎들과 모양, 색깔과 향기 등, 살아서 자라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 꽃과 같다. 그러나 이 꽃은 온갖 질곡 속에서 생명을 보존해온 은근과 끈기의 꽃이다<sup>35)</sup>.

생명과정의 궁극이 완성이듯이 유기적 문학사가 지향하는 바도 하나의 완성의 관념이다. 이를 H. 화이트가 말한 플롯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명백하게 희극 구성으로 되어 있다<sup>36)</sup>. 이것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믿는 희망이 담겨져 있다. 희극의 결말은 화해이다. 이 화해는 인간 상호간의 화해이며 세계와 사회에 대한 인간의 화해이다. 표면상 이것은 세계 내에 존재하는 불변의 상충된 요소들이 일으킨 갈등에서 초래된 것이지만, 이 때의 사회조건은 보다 순수하고 전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표현된다. 결국 이 요소들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조화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기적 문학사는 유기적 역사의 발생-성장-완성이라는 낙관론적 전망을 나타내는 희극구성이 된다. 희극은 경험세계에서 험악한 갈등을 거쳐 모든 사람이 순진 무구의 상태에 늦게 도착해도 이 상태 속에서 이후로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상상운동이다<sup>37)</sup>. 유기적 문학사는 이러한 점에서 완성을 향한 이념이다<sup>38)</sup>. 여기서 역사는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 IV. 유기론의 반근대성과 탈근대성

35) 여기서 '은근과 끈기'는 유기적 문학사론가인 조운재의 말을 빌 것이다.

36) H. 화이트에 의하면 모든 역사는 서술로서 플롯을 지닌다. 이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뜻한다. 만약 어떤 사가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극의 플롯 구성을 제시한다면, 그는 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설명한 셈이다. 마찬가지로 그가 희극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면 그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한 셈이 된다.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점차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방법이 플롯 구성이다. H. 화이트, 앞의 책, p. 21.

37) N. 프라이(임철규역), 『비평의 해부』(한길사, 1982), p. 226.

38) 한 예로 조운재의 『국문학사』(동방문화사, 1949)를 들 수 있다. 조운재의 문학사론에 대한 것은 구모동, 『민족적 역사주의와 문학사』, 앞의 책. 참고.

근대와 전통의 관계에서처럼 유기론은 근대성에 대립하는 이론이다. 이것은 유기론이 단순하게 전통적 이론이라는 데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주의와의 맞섬의 관계에서 주체를 세우려 한 데 기인한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형태의 이론적 성향을 띠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의 대상세계와 일체성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결코 자기를 둘러싼 현실상황을 이론적으로 성찰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적인 이론으로 잠재되어 있던 이것은 근대적인 것과의 명백한 대립을 통해서 뚜렷한 이론의 형태로 부각된다. 달리 말해서 이것은 이미 존재해 온 세계와 인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이념화하여 재해석한 이론이다<sup>39)</sup>. 이처럼 근대의 유기론은 자연과 삶을 살아있는 하나의 전체로 인식하던 시대의 사유방법을 동원하여 삶의 전체성이 확인될 수 없는 혼란의 시기에 생의 느낌들을 하나의 연속성으로 재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유기적 삶의 해체라는 위기에 대응하여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서의 생명의 전체성을 추구하게 된다.

근대의 유기론은 제국주의와 근대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분열된 현실과 대조되는 유기적 전체에 대한 시적 갈망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의 유기론이 갈망하는 유기적 전체가 과거로부터 찾아진다는 점에서 전통은 근대 유기론의 중요한 근원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그 사유방법에 있어서나 세계관에 있어서 전통의 세계를 사유의 연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근대의 유기론은 우주론적인 생명론을 전개하거나 원시적이고 자발적인 생명력과 자기표현 및 감정의 영역을 중시하는 반근대성을 견지한다. 그래서 이것은 유물론을 가장 적대적인 대상으로 본다. 기계론인 유물론이 지닌 물질, 계급, 진보, 혁명 등의 근본적인 변화의 논리는 유기론의 생명, 전체, 성장, 완성 등의 점진적 과정의 논리와 대립한다. 유물론의 기계론이 역사의 무대에서 전개되는 과정을 인과법칙에 따라 파악하는 법칙성의 신념체계라면, 유기론은 당면한 역사의 무대에 전개되는 현상을 부수적인 환상으로 배격하면서 생명이라는 본질을 향하는 신념체계이다<sup>40)</sup>. 유기론은 유물론과의 이러한 대립 과정 속에서 이념적으로 강화되면서

39) 유기론은 유물론과 같은 기계론의 등장에 대하여 크게 자극되고 고무되는 바, 이러한 현상은 세계비평사(지성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도 나타난다. R. 윌리엄스의 앞의 책, T. 이글턴의 앞의 책, R. H. 스타시(이항재역), 『러시아문학비평사』(한길사, 1987), 王育民의(이승민역), 『중국현대철학사1』(청년사, 1989) 등 참조.

그 체계를 형성한다. 유기적 민족과 유기적 역사의 개념은 유기론의 핵심적 이념에 속한다<sup>41)</sup>.

근대의 유기론은 자연적인 삶의 형태들의 자연발생적인 통합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구성체와 미학적 구성체,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간의 조화로운 상호의존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통합된 체계를 지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현실화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학적 지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혼란한 세계의 대안으로 미학을 내세우는 것이다. 근대의 유기론에서 문학은 자연, 조화, 질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세계이다<sup>42)</sup>. 근대의 유기론은 시적 비전과 정치적 실천을 결합시킨다. 이 경우 문학은 모순의 현실과 다른 조화의 세계로서 유기적 사회 혹은 유기적 민족과 상상적 등가가 된다. 유기론의 미학적 지향을 나타내는 또 다른 개념이 미적 자율성이다. 생명체의 자발성에 유비된 미적 자율성 개념은 비유기적인 사회적 삶으로부터의 미적 분화를 가져온다. 소외현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한 이러한 분화는 또한 현실에 대한 부정의 한 양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으로 근대의 유기론은 미학적으로 반근대성 체계를 분명히 한다<sup>43)</sup>.

- 40) K. 버크는 무대, 대행자, 행위, 동인, 목적 등의 5 가지 문법적 구성요소를 통해 유물론과 관념론을 대비하면서 유물론이 대행자, 행위 동인, 목적의 구성요소보다 무대의 구성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대 외의 구성요소를 무대의 부수적 현상 이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관념론은 목적을 보며, 무대 자체를 환상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K. Burke, *A Grammar of Motiv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pp. 3-20.
- 41) 여기서 유기적 민족관은 민족이 하나의 생명체로서 단일한 역사와 문화를 구성하고 유지해 온 것이므로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체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생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유기적 역사는 이러한 민족의 역사가 발생-성장-완성의 상승적 회귀 구조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 42) 이 점은 유기론자인 조지훈과 김동리가 순수문학론을 줄곧 전지하였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 43) 그런데 이러한 미적 부정을 미적 합리성 혹은 미적 근대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진정석은 김동리 비평이 지닌 반근대주의가 낭만적 세계 인식에 기반한 유미주의에 가까운 것이며, 역설적인 의미에서 가장 근대적인 미적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미적 근대성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동리의 반근대주의를 유미주의와 결부시키는 것은 단견이다. 그 보다 유기론의 전통과 관련시킬 때, 김동리의 미적 부정이 결코 근대성 체계 내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석, 「김동리론」, 『한국 현대 비평가 연구』(강,

확실히 근대의 유기론은 본래의 유기론이 지닌 이론적 자유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였다. 그것은 근대성 이론과의 대립 속에서 반동일화의 담론으로 귀착된 데 기인한다<sup>44)</sup>. 즉 근대주의와의 맞섬의 대립구조 속에서 이데올로기화되었다는 것이다<sup>45)</sup>. 그러나 유기론이 지니는 이론적 가능성은 많다. 근대성 비판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생태학적 전망은 유기론의 복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플라톤 이래의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해체론에 있어서 동아시아적 상상력이 한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바, 유기론의 제유적 사유형태는 J. 데리다의 해체론과 다른, 삶의 새로운 관계학이 될 것이다. 서구의 해체론은 기존의 이성중심적 사유와 담론에 대한 해체이지만, 삶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근대를 비판하는 근대로서의 탈근대라는 수준 안에 있다<sup>46)</sup>. 그러나 유기론은 서구중심의 근대적 세계관으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지향한다. 자연과 만물을 연속성을 지닌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는 데서 데카르트와 뉴턴 이래의 사물관과 기계론적 자연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해체론이 새로운 관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물의 근원성, 전체성, 유기적 통일성 등에 바탕을 둔 삶의 기획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sup>47)</sup>.

1996), p. 36.

- 44) 반동일화 담론은 거부하면서도 사실은 공모하는 양식이다. 특수성의 강조가 종속을 만들 듯이 근대의 유기론이 근대에 대한 대타성 담론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M. 페치의 반동일화 담론에 대한 것은 D. 맥도넬(임상훈역), 『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 1992), pp. 53-54.
- 45)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에서의 근대주의와 전통주의의 갈등의 일반적인 양상에 상응한다. 송두율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 “아시아의 모든 종류의 근대화주의자들은 오로지 보편주의적 해방적 요소만을 보고, 그와 함께 끼어들어오는 소외 및 식민화의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반면 보수적인 근본주의자와 전통주의자들은 서구적 현대문명을 퇴폐적인 것으로만 매도하고, 지방적 특수성과 향토성만을 그들의 주체성 보존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송두율, 『계몽과 해방-해결과 마르크스와 베버의 동양세계관』(한길사, 1988), p. 208.
- 46) 문명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실천이다. 그러나 그에서 비롯된 현대의 해체주의는 권력게임이 되었고 정통적인 학술경쟁의 전도된 모습이 되었다. T.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pp. 178-182.
- 47) F. 카프라에 의하면 서구 근세 과학의 사물관은 사람이 없는 인식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자연관은 자연과 만물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적인 자연관을 회복하는 일을 통하여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생명의 기운과 사랑

## V. 마무리

이 글에서 유기론의 전통이 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며,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인 검증이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론적 일반화를 통하여 유기론의 전통이 근대 비평 속에서 어떠한 위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었다.

유기론은 그 이론의 내용과 양상에 있어서 반근대성을 지향한다<sup>48)</sup>. 그런데 이러한 지향이 애초부터 자각적으로 전개되는 이론적 실천과 결부된 것은 아니다. 근대의 유기론은 근대성이론에 대한 대타적인 반응의 산물이다. 이것은 전통적 사유형태를 통하여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려는 반동일화 달론의 한 양상이 된다. 이러한 양상에서 유기론이 본래 지니고 있던 이론적 가능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근대성 체계에 대한 부정이 됨으로써 유기론은 모더니즘(근대주의)에 대립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된다. 유기론과 유평론의 대립이 매우 첨예한 바 있음은 두루 아는 일이다<sup>49)</sup>. 그런데 유기론을 근대 속에서 근대를 비판하는 이론의 한 양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유기론이 근대 부정을 통하여 이끌어 내고자 한 것이 미적 근대성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대 부정을 통하여 유기론이 세운 뚜렷한 기획은 없다. 유기론의 부정은 오히려 보존의 전략에 가깝다. 이것은 본질을 수단화함으로써 당면한 근대의 무

에 의해 유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F. 카프라(이성범·김용정역),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범양사출판부, 1979). 광신환, 『주역의 이해』(서광사, 1990), pp. 283-314.

48) 그래서 이것은 보수주의적 이론이다. 근대성을 미완의 기획으로 보는 J. 하버마스는 반근대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탈근대성 이론 모두를 보수주의로 본다. 그에 의하면 원시적·자발적 힘과 자기표현, 감정의 영역에 기대는 반근대성 지향은 젊은 보수주의가 되고 우주론적 윤리에 터하는 전근대성은 늙은 보수주의에 속한다. 또한 그는 탈근대성 지향을 신보수주의로 본다. 이러한 하버마스의 관점에 선다면 유기론은 보수주의에 다름 없다. 그런데 근대성을 미완의 기획으로 보는 그와 관점을 달리 할 때, 유기론의 의의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J. Habermas, *Modernity—An Incomplete Project, The Anti-Aesthetic* (H. Foster ed. Bay Press, 1983), pp. 14-15.

49) 특히 해방공간에서 조지훈과 김동리의 유기론이 보인 유평론과의 대립을 상기할 수 있다.

질서와 혼란을 전디고자 한다. 유기론이 근대 비평의 한 타자로 남게 되는 것은 대립의 대상에 대한 비판의 구체성이 결여된 데 비롯한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서사로 존속함으로써 이론적 의의를 스스로 좁힌다. 유기론은 근대주의라는 악으로부터 주체를 지키려는 이상주의적 담론이다. 이것이 지닌 시적 비전은 잃어버린 순수 공간 혹은 조화의 공동체에 대한 향수이다. 유기론의 미학이 서정의 철학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기억의 현상학에 의존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유기론의 배후에는 근대의 물질 문명에 대한 회의와 과거의 유기적 사회에 대한 동경이 함께 한다. 그러나 유기론은 미래에 대한 비판론이 아니다. 유기적 역사에서처럼 회극적 결말에 대한 염원은 시적 역설과도 같다.

유기론의 이론적 복원 가능성은 이 이론이 지닌 낙관론적 전망에서가 아니라 근대성 체계에 대한 비판과 해체라는 비평적 지형의 변화와 관련된다. 본격적인 근대 비판과 함께 부각되는 이론적 주제가 자연의 재문맥화 혹은 생태학적 상상력이라고 할 때, 유기론의 이론적 가능성은 다시 확장된다. 즉 자연과 만물에 대한 유기론의 제유적 인식은 근대의 기계론적 환유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유기론이 지닌 탈근대적 전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적 상상력의 복원과 비평적인 오리엔탈리즘의 극복과 유관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급이 없었다. 유기론의 탈근대성은 앞으로의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